

인구감소와 대한민국의 붕괴



이 정 희 의

西村브리핑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중국의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기준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956만명을 기록했고, 1041만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으로 1년 전(5164만명)보다 20만명(0.4%)이 줄었다. 2019년 5185만명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커지는 추세다. 2020년 2만명이 감소하더니 2021년엔 19만명이 줄었고 지난해엔 20만명이 감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죽은 사람보다 신생아 울음 소리가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출산율 감소를 출생아 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으로 2000년 64만명에서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조사 집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결혼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채 1명도 안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최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20년 연속 최저출산 국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쑤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구 예측 결과 재생산 능력을 잃은 한국 사회는 2020년 약 5100만명에서 2060년 35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더 나아가 2100년에는 인구가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은 인구,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소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2100년에는 현재 대만 인구(2500만명)에도 못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사회의 양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회의 젊은 층이 감소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게 다른 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후자를 일컫는 말이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중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세계적 고령 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1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간격이 고작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놔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상을 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를 명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linh@metroseoul.co.kr

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지 수첩

박 정 익
(정치경제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300억달러(약 37조 5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UAE 정상 공동성명에 명기했고,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비즈니스포럼 계기 최소 61억달러(약 7조 5000억원) 등 지난 세 번의 해외순방과 비교했을 때도 확연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해외순방 때마다 떨어진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해외순방을 통해 정상 간 회담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

나가 국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번 UAE 국빈방문도 그렇다. 이렇듯 큰 경제성공을 거뒀음에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도중 나온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의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 당시 일을 떠올릴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날리면’과 ‘이 X X’ 발언 논란은 국내에서 파장을 일으켰지만, 미국 측의 입장 발표 등 어떻게든 수습될 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의 후폭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미국 순방 때와 달리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이에 이란 정부 측이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음에도

이란 외무부는 주(駐)이란 한국대사를 조치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등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수습에 나서야 할 정부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대통령실의 ‘장병 격려 차원’이라든지,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UAE의 적은’ 한 템포를 쉰 것은 정정의 의미라고 해석하는 등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논란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이 밝혔던 역대 UAE 순방 최대 규모의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안정감 있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실수에 대한 빠른 수습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pathfinde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하루**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9		1			
	5		6		
				7	3
		8	1		7
	8	3		7	2
6			9	2	
5	2				
			8		6
				4	
					1

		1	9		8
		6		4	
			8		6
	2				1
			7		4
				9	
		4			6
	1			5	
3					

정답

1	2	9	7	2	9	8	6	3
2	3	9	6	8	9	7	1	2
6	8	7	1	3	2	2	9	9
9	1	8	2	6	7	2	3	9
9	2	6	2	9	3	1	8	7
2	7	3	9	1	8	6	9	2
3	9	2	8	7	6	9	2	1
7	6	1	3	9	2	9	2	8
8	9	2	9	2	1	3	7	6

6	8	2	1	9	7	2	9	3
7	3	2	9	2	8	6	1	9
9	9	1	6	2	3	7	2	8
8	1	9	7	6	2	3	9	2
9	2	7	3	9	2	8	6	1
3	2	6	8	1	9	9	2	7
1	7	9	2	8	9	2	3	6
2	6	3	7	9	1	9	8	9
2	9	8	9	3	6	1	7	2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오늘의 운세

1월 20일 (음 12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체면치레하다가 손실이 커진다. 48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60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본다. 72년생 길 떠나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은 필수. 84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생각해라.

 소

37년생 겨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이다. 49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61년생 소문난 잔치에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 73년생 가까운 곳에 행운이 오니 기대가 크다. 85년생 오늘날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는데.

 호랑이

38년생 여행을 떠나면 상비약을 챙겨라. 50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여라. 62년생 유래 상태 통쾌한 하루. 74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86년생 마음은 있으나 지갑이 떠나지 않아.

 토끼

39년생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51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자제해야. 63년생 작은 것은 포기하고 큰 것을 노려라. 75년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살자. 87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양

40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심이 필요. 52년생 기대한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은 과감히 포기. 64년생 동상에 걸린 발을 얼음물에 넣는 격. 76년생 부적절한 만남을 경계. 88년생 사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뱀

41년생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니 잘 챙겨라. 53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65년생 어려운 일은 배우자의 도움으로 해결. 77년생 마음이 상해도 상사 뜻을 존중. 89년생 순환계통의 질환이 걱정된다.

 말

42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몸에 지녀라. 54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 66년생 옛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적당한 경쟁이 발전의 밑거름. 90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양

43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5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겹친다. 67년생 모심으로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7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91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를 하도록.

 원숭이

44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56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세탁. 68년생 비단옷을 입고 걸어다 봐 주는 사람이 없다. 80년생 의견이 맞지 않으나 양보. 92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닭

45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57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밝히게 하니 좋은 일이 있다. 69년생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라. 81년생 자주 만나야 친구간의 정도 있다. 93년생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날이다.

 돼지

46년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물이 들어온다. 58년생 전퇴양반의 경우라도 조심하면 길이 열린다. 70년생 상사의 조언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82년생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라. 94년생 기도로 심란한 마음을 다져 보는 것도.

 돼지

47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5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길을 비켜준다. 7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행복한 날. 83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95년생 때로는 실력보다 성실한 자세가 중요할 수 있다.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⑥

오행五行의 상생相生에서 상생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생을 해주는 오행은 힘이 빠지고 생을 받는 오행은 힘을 얻는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생한다. 반대의 상극相剋에서 극이란 공격하여 파괴한다는 뜻이다.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하여 극을 당하는 오행은 힘이 빠지고 극을 하는 오행도 힘이 빠진다. 천간天干의 충衝과 극剋은 다르다. 갑甲은 양목陽木 을乙은 음목陰木 병丙은 양화陽火 정丁은 음화陰火 무戊는 양토陽土 기己는 음토陰土 경庚은 양금陽金 신辛은 음금陰金 임壬은 양수陽水 계癸는 음수陰水이다.

충衝과 극剋을 구별하는 기준은 방위의 배합에 있다. 동과 서 남과 북처럼 정반대인 것끼리의 관계를 충이라 한다. 동방의 갑甲과 서방의 경庚, 을乙과 신辛, 남방의 병丙과 북방의 임壬, 정丁과 계癸는 정반대 방향이므로 충이된다. 남방의 병丙과 서방의 경庚, 정丁과 신辛은 정반대 방향위가 아니고 남과서의 극으로 화극금火剋金이지 충衝이 아니다. 무기戊己는 중앙에 위치한 토土이므로 충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戊는 임壬, 기己는 계癸, 갑甲은 무戊, 을乙은 기己를 극剋한다.

요약하면 천간은 갑경甲庚申 을신乙辛申 병임丙壬申 정계丁癸癸이요 병경丙庚극 정신丁辛극이 된다. 양과 양, 음과 음은 음양陰陽이 배합을 이루지 못하므로 극을 하지만 음양이 다르면 극하지 않고 합을 한다. 오행에서는 목은 토를 극한다고 했지만 음양이 다른 천간끼리는 양목합음陽木合陰土로 합을 하게 되니 합승과 화화에 5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갑기합토甲己合土 을경합금乙庚合金 병신합수丙辛合水 정임합목丁壬合木 무계합화戊癸合火로 음과 양이 배합한다. 합은 새로운 오행으로 변하는데 변환오행을 화오행火五行이라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1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